

## 대보인터내셔널슈핑

승진인사(3/1)

대보인터내셔널슈핑(대표 노재영)는 3월 1일자로 2010년도 정기 임직원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부장→이사 : 기획/경영지원 담당이사 박영규  
 △차장→부장 : 법무보힘팀 문홍일 △과장→차장 : 경영지원팀 채경목 △대리→과장 : 벌크선2팀 엄상흠 △대리 : 벌크선1팀 이의경, 벌크선1팀 한동민, 벌크선3팀 서병화, 법무보힘팀 정용호

## 대한통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적립 제휴

대한통운 대표 이원태는 2월11일 아시아나항공과 자사 해외이사 서비스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마일리지 적립 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통운 해외이사 서비스 이용고객은 계약금액 당 일정비율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게 됐다.

마일리지 적립율은 1천 원 당 3마일로,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국제이사를 하는 고객의 계약운임이 350만 원일 경우 마일리지는 1만500마일을 적립받을 수 있다.

적립받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아시아나항공 및 스타얼라이언스, 제휴항공사 보너스 항공권 발급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아시아나 클럽 마일리지 사용물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과의 제휴를 통해 회사는 해외 이주화물 유치 증대 효과를, 고객은 마일리지 적립으로 보너스 항공권 발급이나 각종 상품구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통운은 일본에 72년, 미국에는 74년에 각각 물류업계 최초로 진출해 네트워크를 확충해왔으며, 중국에는 상하이, 텐진, 홍콩에 법인을 두고 각 법인별 지점망을 확대하는 등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신뢰도 높은 해외이사와 국제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삼선로직스

기업회생 인가결정

삼선로직스(대표 허현철)의 회생계획안이 인가 받았다. 2월5일 삼선로직스는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로부터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는 채권단이 회생담보권 96.95%, 회생채권 91.84%의 찬성으로 인가가 결정됐다.

이번 회생계획안에는 삼선로직스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에 걸쳐 상사채무 및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면서 회사 정상화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구성 돼 있다.

우선 상거래채무의 경우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66% 출자전환하고, 34%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의 10%는 제 1차연도(2010년)에 변제하고, 변제할 채권의 18%는 제 2차연도(2011년)부터 제 3차연도(2012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한다.

변제할 채권의 40%는 제 4차연도(2013년)부터 제 8차연도(2017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여 변제하고, 변제할 채권의 15%는 제 9차연도(2018년)에 변제하고, 변제할 채권의 17%는 제 10차연도에 변제한다.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확정순해배상채무도 이와 마찬가지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66% 출자전환하고, 34%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의 10%는 제 1차연도

(2010년)에 변제하고, 변제할 채권의 18%는 제 2차연도(2011년)부터 제 3차연도(2012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한다.

변제할 채권의 40%는 제 4차연도(2013년)부터 제 8차연도(2017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여 변제하고, 변제할 채권의 15%는 제 9차연도(2018년)에 변제하고, 변제할 채권의 17%는 제 10차연도에 변제한다.

미확정용선료채무와 미확정손해배상채무는 회생채권 조사재판확정이나 이의의 소에 의하여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 회생채권 상거래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

한편 매년 변제할 원금 및 이자는 당해 연도의 12월 30일(단, 공휴일 그 직전 영업일)에 변제한다. 위 변제기일 전이라도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시로 변제할 수 있다. 조기 변제할 경우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하여 연 6.23%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 STX팬오션

### 해운물류경영대상 수상

STX팬오션(대표 이종철 부회장)이 한국해운물류학회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0 해운물류경영대상' 종합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 2월17일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운물류경영대상은 2002년 '해운물류 e-Biz 대상'으로 제정된 이후 매년 해운업계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해운물류기업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한국해운물류학회,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해양수산개발원, 한국선주협회, 한국물류협회, 매일경제신문, 쉬핑데일리 등 국내 학계, 업계, 언론계 인사로 구성된 전횡위원들이 과거 3년간의 경영성과, 사회 기여도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

수상자를 최종 선정, 발표하고 있다.

한국물류학회측은 "STX 팬오션은 지난 3년간 급변하는 해운 시장에 적절히 대응해 2007년 매출액 4조8734억원과 영업이익 4627억원, 2008년 매출액 8조2673억원과 영업이익 7450억원이라는 큰 폭의 실적 상승을 달성했다"며 "2009년 역시 시황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3분기 순이익 기준 흑자전환, 4분기 영업이익 기준 흑자전환을 달성하는 등 업계를 선도하는 우수한 경영실적을 보인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STX팬오션 추성엽 부사장이 대표로 참석해 수상했다.

추성엽 부사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STX팬오션이 국내 해운업계를 선도해나가는 기업으로 인정받은 만큼 글로벌 Top 해운선사로 도약하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며 "2010년은 영업력 강화와 신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안정성을 확보하고 보다 철저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미래 10년 성장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해운물류학회가 주관하는 해사문화상, 추정학술상 등도 함께 시상됐다. STX팬오션은 STX Prize시상자로서 학회가 선정한 중국 해양대학 Bao JIANG, Jian LI 교수의 논문에 상을 수여했다.

또한, STX팬오션은 3년 만기 무보증사채를 오는 3월 15일에 발행할 계획이다.

발행 금리와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6.85%에 1천500억 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발행 금리는 전일 기준 'A' 등급(공모, 무보증) 민간시가평가 대비 120bp 이상 높은 수준이며 조달된 자금은 회사채 차환자금으로 사용된다.

STX팬오션은 작년에는 세 차례에 걸쳐 공모 회사채 시장을 두드렸고 그 결과 2월에 연료비와

용선비용 마련을 위해 1천500억원, 5월과 7월에는 연료비 조달용으로 각각 2천억 원어치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신용평가사들은 STX팬오션의 회사채 등급을 'A(안정적)'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STX팬오션은 해운업의 위축으로 전년 대비 53.1%나 감소한 3조9천893억원의 매출에 822억원의 영업 적자를 나타냈다.

작년 9월 말 기준 차입금은 1조8천686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무려 9천억원 이상 증가했고, 순차입금도 1천786억원에서 6천972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작년 4분기 주요 해운사 가운데 유일하게 영업흑자로 돌아섰고, 올해도 가장 확실한 흑자 해운사로 예상되고 있다.

연합인포맥스 컨센서스에 따르면 STX팬오션은 올해 5조3천958억원의 매출에 1천762억원의 영업이익, 1천54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다.

## 한성라인

대표에 임종식 사장

장금상선(대표 정태순)이 3월 1일자로 조강해운과 국양해운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던 임종식 사장을 한성라인 대표이사로 발령하는 등 계열사 사장단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임종식 사장이 한성라인 대표이사로 선임됨에 따라 그동안 한성라인 대표이사를 역임해왔던 고순영 사장은 조강해운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임종식 사장이 겸임하고 있던 국양해운 대표이사는 정철권 상무를 전무로 승진시키면서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장금상선그룹 계열사 보직인사(3/1)〉

△한성라인 고순영 대표이사 사장→조강해운 대표이사 사장

△국양해운 임종식 대표이사 사장→한성라인 사장 대표이사 사장

△국양해운 정철권 상무→국양해운 대표이사 전무

## 한진

4Q 매출액 2,505억원 기록

한진(대표 석태수)이 지난 4분기 2,505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전년인 2008년 4분기 대비 14% 매출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4분기 실적은 전기대비 9% 증가한 실적이다.

이로써 한진의 지난해 총 누계매출액은 9,031억원으로 전년인 2008년 매출액인 8,553억원과 비교해 5.6% 증가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지난 4분기 77억원을 기록하며 전 분기인 3분기의 91억원과 비교해 15.6% 감소, 전년동기의 81억원과 비교해 5.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계영업이익은 지난해 27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인 2008년 누계영업이익인 291억원과 비교해 7.1% 하락했다.

한편 지난해 한진의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 특히 지난 4분기 한진은 12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전년인 2008년 4분기 517억원의 손실과 비교해 흑자전환했다. 이로써 지난해 총 누계 순이익은 87억원을 기록했다.

## 한진중공업

한진수빅에 1,751억 채무보증

한진중공업(대표 이재용)은 한진수빅조선소(HHIC-Phil Inc)와 한국산업은행과의 대출약정(Loan Agreement)과 관련해 1,751억7,000만원 상당의 자금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2월2일

공시했다.

한진중공업에 따르면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중 R/G관련 채무보증은 실차입금에 대한 채무보증이지 아니며, 필리핀내 법인인 한진수빅조선소(HHIC-Phil Inc)의 신규선박수주에 따른 원활한 선수금 환급보증서(R/G) 발급을 위해, 모회사인 한진중공업이 구상금 채무한도를 보증하는 연대보증액”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채무보증금액은 2월 2일자 최고고시 매매기준율(1167.8원/USD)을 적용하여 원화환산한 금액이다.

## 한진해운

작년 12월 매출 6,681억원

한진해운(대표 김영민)은 2009년 기업분할 후 처음으로 매출액 6,681억원, 영업손실 304억원의 2009년 영업실적을 2월4일 발표했다.

한진해운은 “기업분할로 2009년 11월까지 경영실적은 지주회사의 중단사업손익으로 반영됐으며, 신설법인 한진해운 매출액과 영업손실은 12월 한달동안 실적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분할 전 기준에 의할 경우 “4분기 컨테이너 부문 매출액은 태평양노선 물동량 증가와 구주노선 운임회복으로 전분기 대비 6.7% 증가한 1조 5,095억원, 영업손실은 640억원 개선된 1,567억원을 기록했고, 벌크 부문 매출액은 운용선대 증가와 성수기 물동량 증가로 전분기 대비 1.9% 증가한 3,746억 원 달성했으며, 영업손실은 54억 원으로 적자폭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분할 전 기준 “2009년 컨테이너 부문 전체 매출액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송량 감소, 태평양과 아시아 유럽노선의 운임하락으로 전년 대비 21.7% 감소한 5조 6,157억원, 영업손실 8,341억원, 벌크 부문은 화물수송량은 16% 증가

했으나 운임하락과 대선수입 감소로 매출액은 31% 감소한 1조 5,077억원, 영업손실 1,08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진해운은 “2010년 해운환경은 과거 발주된 신조선 인도로 공급초과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류비용 절감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서비스 속도 감축 확대, 노후선박 해체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공급량 축소, 미국과 유럽 경기의 점진적 회복에 따른 해상물동량 증가로 영업환경은 전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했다.

또한 2010년 경영목표를 ‘흑자경영 달성을 통한 재무적 안정성 확보’로 확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운산업 부문 수익성강화, 위기에 탄력적 대처를 위한 조직과 인력 강화, 재무 구조개선, 사업부문별 포트폴리오를 최적화를 추진전략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 현대상선

연지동 사옥 이전



현대그룹 서울 연지동 신사옥 전경.

현대그룹 제공

현대그룹은 서울 종로구 연지동 신사옥 ‘현대그룹빌딩’에 입주해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계열사 중 1차로 현대상선, 현대택배, 현대유엔

아이, 현대투자네트워크 등 4개사가 1일 입주를 마쳤으며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아산, 현대경제연구원 등 3개사도 7일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로써 여의도에 별도 사옥이 있는 현대증권, 현대자산운용 등 금융계열사를 제외한 전 계열사 사무직 직원중 서울 근무인원 1600여명이 신사옥에서 일하게 된다.

현대그룹 신사옥은 부지 1만1078㎡(3천4백여평)에 동관 12층, 서관 15층 등 2개동으로 건물면적이 5만2470㎡(1만6천여평)에 이른다. 지난 2008년 11월 매입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입주하게 된 것이다.

동관에는 전략기획본부 등 그룹조직과 현대상선(기획, 관리 관련 부서),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유엔아이, 현대투자네트워크 등이 입주하고, 서관에는 현대상선 영업 관련 부서와 현대택배, 현대아산, 현대경제연구원 등이 들어선다.

특히 동관 2층에는 120석 규모의 대형 고객접견실을 따로 확보해 외부 방문객들과 회의를 하거나 고객들의 휴식장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고객접견실에는 또 선대회장인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 고 정몽헌 회장의 업적을 기리는 코너를 마련했다.

또한, 현대상선은 2월5일 이사회를 열어 금년도 사업계획을 비롯한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현대상선의 올해 매출은 지난해 6조 1,155억원보다 17% 증가한 7조 1,373억원이며, 영업이익은 지난해 5,654억원 손실에서 3,358억원 흑자 전환을 목표로 잡았으며, 컨테이너 수송 목표는 지난해 251만TEU보다 21% 늘어난 305만TEU이다.

한편 현대상선의 올해 투자규모는 지난해 2,560억원 보다 102% 늘어난 5,176억원으로 대부분 선박 및 항만 시설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2월26일 2200TEU급 현대 브릿지호 기

항을 시작으로 부산신항 터미널 운영을 시작했다.

현대상선 터미널은 부산신항 남쪽 컨테이너부두 대지 55만㎡에 안벽 길이 1.15km, 수심 17m 규모로 건설했다.

5만t급 컨테이너선 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선석 3개와 야드 크레인 36기, 탠덤 크레인 11기를 갖췄다. 연간 처리물량은 200만TEU다.

총 1600억원을 투자한 현대상선 터미널은 지난 2004년 착공해 작년 말 완공했다. 지난 1월28일 시험선 접안 테스트를 거쳤다.

이번 터미널은 한진해운에 이어 2번째로 개장한 터미널로, 규모는 한진해운과 비슷하다. 한편 한진해운은 작년 2월 5만t급 컨테이너선 선석 3개를 갖춘 부산신항 터미널을 개장했다.

## 흥아해운

'2010 경영슬로건 선포식' 개최



흥아해운(대표 이운재)은 2월19일, 20일 양일간 경기도 양평 양평리조트에서 과장급 이상 중간관리자급이 참가하는 워크샵 및 2010년 경영슬로건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흥아해운은 'UPGRADE HEUNG-A!' 라는 2010년 경영슬로건을 발표하고, "경영관리시스템, 운영효율성, 영업경쟁력, IT활용성의 업그레이드"라는 경영목표를 설정하

였다.

경영슬로건 선포식에 이어 진행된 워크샵에서는, 홍아해운의 반세기 역사를 돌아보고 2010년 경영목표에 대하여 분임토의 및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여, 경영진과 중간 관리자들간의 소통을 도모하고 홍아해운의 VISION을 확립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홍아해운은 이날 행사에서 '육일약국 갑시다'라는 약사 출신 CEO 김성오 사장의 성공이야기를 연극화하여 '고객중심 경영'을 배우는 자리를 갖고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하면서 홍아해운의 화합과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다고 전했다.

## 선박안전기술공단

전보인사(3/1)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민경태)이 3월 1일자로 임서혁 제주지부장 수석행정원을 경영기획팀장으로 전보발령하는 등 13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임서혁 제주지부장 수석행정원→경영기획팀장 △장현재 태안지부장 차석검사원→안전기획팀장 △이광성 안전기획팀 차석검사원(선체)→기술지원팀장 △나형진 인천지부 차석검사원(선체)→기술연구팀장 △윤양균 경영기획팀장 이사대우→태안지부장 △이희준 기술연구팀장 수석검사원→군산지부장 △강종수 통영지부장 수석검사원→목포지부장 △장세평 목포지부장 수석검사원→여수지부장 △김동철 여수지부 수석검사원(기관)→완도지부장 △정덕수 기술지원팀장 수석검사원→포항지부장 △김종범 완도지부장 차석검사원→마산지부장 △이찬우 안전기획팀장 수석검사원→통영지부장 △장일수 포항지부장 수석검사원→제주지부장

##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2010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방동식)이 지난 2월24일 부산 마린센터 3층 국제회의장에서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총 95명의 대의원들이 참여한 이날 대의원 대회에서 전국해상노련은 '선상부재자투표제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특별결의문'과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개정을 위한 특별결의문', '신항만 내 선원 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 결의문', '선원근로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추진 결의문',

'선원임금채권보장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결의문' 등을 채택했다.

해상노련 방동식 위원장은 이날 대회를 통해 "연맹은 선상부재자제도의 입법화와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 개정 등 중요한 과제들을 앞두고 있다. 또 연맹의 조직 시스템도 개선해 연맹의 발전 방향도 새롭게 정비해야하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청장 인사말을 통해 "선원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위해 800여명의 승선예비역인원을 1000명으로 확대하고 해군출신의 사관과 부사관 인력을 해기사로 적극 전환하겠다. 또한 맞춤형 해기사 양성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선원의 장기승선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선원의 근로조건 준수를 위한 근로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박태원 협회장 취임

연합해운 박태원 사장이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제19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국제해운대  
리점협회는 2월 18  
일 서울 프레지던  
트 호텔에서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이상복 회장이 일  
신상의 이유로 사  
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부회장직을  
맡고 있던 연합해

운 박태원 사장을 회장으로 추대했다.

이에 따라 박태원 신임 회장은 이상복 전회장의  
잔여임기 2년간 국제해운대리점협회장으로 활동  
하게 됐다. 박태원 회장이 협회장으로 영전함에  
따라 공석이된 부회장직에는 동아로지스틱스의  
이상직 사장이 선출됐으며 박 회장이 맡고 있던  
해운1위원회 위원장은 범주해운 강문기 전무가  
위원장에 선출됐다.

박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최근 대리점의  
영업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대리점간 협력  
과 경쟁을 유도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회장은 부산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  
영학과를 졸업하고 1975년에 연합해운에 입사한  
이후 줄곧 연합해운에서 35년간 일해왔다. 박 회  
장은 1999년부터 연합해운 대표이사와 천우통은  
대표이사로 일해오고 있다.

〈박태원 회장 약력〉

△1946년 경남 거제 출생 △1965년 부산고 졸  
업 △1975년 연세대학교 경영과 졸업 △1975년  
연합해운 입사 △1992년 연합해운 이사, 천우통  
은 이사 △1999년 연합해운 대표이사, 천우통은  
대표이사 △2008년 연합해운 대표이사 △2010  
년 국제해운대리점협회 회장

## 한국선급

IACS EG/ILO 의장직 유치

한국선급(회장 오공균)이 국제선급연합회의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 그룹(Inter-  
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y Expert Group/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ACS EG/ILO)의  
의장직을 수임했다.

한국선급 협약심사팀의 전정총 팀장이 의장  
직을 맡아 2011년 발효가 예상되는 해사노  
동협약에 따른 인증검사에 대한 IACS의 공  
통 규칙 또는 적용 지침 등을 신규 개발한다.  
또한 해사노동협약의 시행관련 문제점을 논  
의하고 그 결정사항을 국제선급연합회 일반  
정책 그룹(IACS General Policy Group :  
IACS GPG)에 직접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  
는 등 해사노동협약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IACS 차원에서의 전문적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IACS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 그룹은 해  
사노동협약의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준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2006  
년 신설되어 준비작업을 진행했으나 IACS에  
대한 EU 경쟁총국의 조사로 인해 잠시 중단  
되었다. 이후 해사노동협약 시행을 위한  
IACS 차원에서의 통일된 준비작업의 필요성  
을 재인식한 IACS 일반정책 그룹의 권고에  
따라 이번에 재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선급의 전정총 팀장은 "이번 의장직 수  
임을 계기로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IACS내  
서의 인증검사 규칙 또는 지침 개발에 한국선  
급이 주도권을 가지게 됨은 물론 해사노동협  
약의 발효에 대비하여 선사에 대한 기술지도  
와 인증검사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업무를 더

육 활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선급은 24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오공균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재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 회장은 오는 2013년 3월까지 한국선급의 경영을 다시 한 번 맡게 됐다.

지난 1960년 설립된 한국선급은 상선에 매기는 선박의 등급인 선급업무를 보는 기관으로 선박검사, 연구개발, 품질인증, 산업업무, 외국선급과 업무협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한국항만물류협회

동방 김진곤 부회장, 회장으로 선임

동방그룹 김진곤 부회장이 제14대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한국항만물류협회는 2월 25일 2010년도 1차 이사회 및 제33차 정기총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국동 전임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김진곤 동방그룹 부회장을 신임 항만물류협회 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동안 항만물류협회 수석부회장직을 맡아온 신임 김진곤 항만물류협회 회장은 지난해 이국동 전임 회장이 구속, 협회 회장직이 공석이 됨에 따라 하역 재경 6사 사장들로 구성된 회장단으로부터 일찌감치 차기 항만물류협회 회장으로 추대된 바 있다.

25일 정기총회에 참석한 항만물류협회 임원 및 대의원들은 김진곤 수석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임원 선임안건을 제청, 이를 바로 승인, 의결했다.

항만물류협회측은 30여 년간 (주)동방에 재직하면서 항만하역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전문경영인으로서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김진곤 동방그룹 부회장을 이번에 신임 회장으로 추대, 선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진곤 항만물류협회장 약력〉

△1946년 부산 출생 △동아대학교 상대경제과 주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전경련 국제경영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1981년 4월 (주)동방 입사 △1990년 2월 (주)동방 포항지사장 △1992년 5월 인천지사장 △1995년 1월 광양지사장 △1995년 본사 영업본부장 및 전무이사 승진 △2002년 1월 (주)동방 대표이사 △2006년 7월 (주)동방 부회장 △2008년 1월 동방금속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2008년 1월~현재 동방그룹 부회장 △2009년 4월 (주)동방 대표이사 취임 △1980년 9월 내무부장관 표창 △2001년 9월 철도청장 표창 △2003년 12월 한국 CEO 경영대상 수상

## 한국해양대학교

‘바우처 사업’ 저소득층 주민 제공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오거돈)는 부산 영도구 관내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월18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 복지 증진과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이 사업은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 공모사업에 해양대 평생교육원이 제공기관으로 선정돼 총 3개의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에는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리더십양성 주니어해양사관학교’와 ‘실버해양레저체험단’ 2개의 사업을 시행하는 대신 제한 인원을 지난해 각



각 100명에서 120명과 140명으로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리더십양성 주니어해양사관학교’는 영도구에 거주하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일 경우 우선 선발된다. 영어교육을 포함한 세계화 학습(주 3회)과 해양스포츠 등 해양 전반에 대한 체험 교육(월 1회)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력신장은 물론 체력강화 및 리더십 양성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실버해양레저체험단’은 60세 이상의 영도 주민으로서 월평균소득이 120% 이하면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주 2회 교육되는 수영, 요가, 아쿠아로빅 등의 수중 운동과 월 1회 실시되는 해양레저 및 문화체험학습을 통해 건강한 노년을 대비한 체력 증진과 여가선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실시된 이 두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리더십양성 주니어해양사관학교’는 △리더십 함양 94%, △해양문화 이해도 87%, △고용 창출 89.2% 등이었다. 또 ‘실버해양레저체험단’은 △건강체력증진 87%, △질 높은 서비스 제공 81%, △고용창출 150%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한국해운대 평생교육원 하해동 원장은 “바우처 사업은 가정형편 때문에 학교 수업 외에 다른 강습은 엄두도 내지 못한 청소년들과 다채로운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없었던 노인들이 교육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즐겁게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만큼 영도구 관내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지원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바우처’ 사업 참가자는 월 17만원의 교육경비 중 3만 4천원을 납부하면(바우처지원금: 13만 6천원) 한국해운대의 전문화된 해양문화와 레저 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 교육신청은 매달 20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의료보험증을 지참하여 바우처 등록을 한 후 승인을 받아 한국해운대에 접수하면 된다.

## 한국해운조합

‘가보고 싶은 섬’ 봄맞이 이벤트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정유섭)이 운영하고 있는 섬여행 미니홈페이지 ‘가보고 싶은 섬 (<http://town.cyworld.com/island>)’이 사이버머니 제공 봄맞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3월 한달 동안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섬여행 플랜 작성을 비롯해 봄맞이 섬여행 촬영 사진과 추억담을 게재해 나눔의 장을 마련하는 2010 SPRING 섬여행 추억담 나누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참여 네티즌을 대상으로 3000개 규모의 사이버머니가 제공된다.

해운조합 미니홈페이지는 2006년 2월 오픈 이후 현재까지 일평균 방문 네티즌 600여명, 개인 및 단체별 일촌맺기 2000여건, 누적 방문객 약 8만여명을 돌파하는 등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또 기존의 한국해운조합이 운영하는 가보고 싶은 섬 사이트 (<http://island.haewoon.co.kr>)와 연동을 통한 용이한 자료 검색, 의견교환 등이 가능하여 섬여행에 대한 매력과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25일 2010년도 제1회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선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운영중인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의 2010년도 부과율을 국내 최저인 임금총액의 1000분의 0.5를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위원장 정유섭)는 먼저 2009년도 운영실적을 보고 받고, 2010년도 운영계획을 심의하면서 동 기금이 매우 안정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운조합은 이 기금을 2005년부터 운영하면서 관련 제도미비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선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1097개 업체, 2570척, 선원 1만 433명, 8억 413만 2000원을 기금적립액으로 보유하면서 안정권에 접어들었으며, 현재 타 단체에서도 조합의 운영형태를 모범사례로 하여 관련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한편 해운조합은 앞으로도 가입선사의 경비 부담과 연안해운업체의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 한국해운중개업협회

3개사 가입으로 총 64개사

최근 한국해운중개업협회 회원사 가입이 줄을 잇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해운중개업협회(회장 엄정호)는 최근 2주사이에 코리아마리타임, 자이로마리타임, 코엘인터내셔널 등 3개 회원사가 신규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까지 61개사였던 해운중개업협회 회원사수는 64개사로 늘어났다.

1년에 보통 1~2개사가 회원사로 가입하는 것이 고작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최근 2주사이에 3개사가 늘어난 것은 대단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지난 3월 4일 회원사에 가입한 자이로마리타임의 길강신 부장은 “자이로마리타임은 2006년에 설립돼 S&P와 신조선, 해체매각 부문에서 전문으로 일해 왔다. 그동안 협회에 가입하겠다는 생각은 해오고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가 이번에 결정을 하게 됐다. 앞으로 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최신 정보들을 공유하고 해운중개업 발전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해운중개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회원사 가입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동안 협회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해운중개업체들이 최근 들어 스스로 가입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다. 최근 가입한 3개사 외에도 여러 업체들이 가입을 문의해오고 있어 앞으로 신규 가입 회원사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해운중개업협회 가입이 크게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근 정부가 해운부대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협회들과 협의를 통해 우수기업 인증제, R&D 센터 설립 등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동안 협회 가입에 시큰둥했던 업체들이 회원사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다. 앞으로 정부정책이 시행되면 협회의 기능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협회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운중개업협회는 “앞으로 해운중개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회원사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 인력양성 지원 프로그램, R&D센터 설립 등 회원사들에게 보다 고급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